

광주, 코로나 한파에도 관광업체 증가

지난해말 기준 852개...전년 대비 23개 증가 “지원 정책 효과·일상 회복 기대감 등 반영”



광주지역 관광사업체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한파 속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전국관광업체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관광업체 수는 852개로,

2020년 829개보다 23개(2.8%)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업체가 지난해보다 평균 7개(1.9%) 감소한 상황에서 네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여행업이 14개 증가했고, 관광

객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과 한옥체험도 각각 1개와 2개 늘었다. 회의업과 유원시설업도 각각 3개와 4개 증가한 반면 관광편의시설업은 1개 감소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2차례 지급된 여행업체 생활안정자금(업체당 최대 250만원) ▲중소여행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 최초 공유사무실 지원(현 18개 업체 입주) ▲관광업체 '뉴노멀 힐링 투어' 상품 개발 지원(145곳 선정, 1007명 투어 참여) ▲관광업계 종사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160여 명) 등 지난해 추진한 선제적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과 관광가이드 매칭 지원, 관광객 유치 보상 등을 통해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박진기자



코레일 광주전남본부-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해빙기 맞아 재해우려개소 합동 특별 안전점검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서는 합동으로 최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낙석, 비탈면 붕괴, 수해우려개소 등으로부터 열차 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노후화된 경전선의 낙석 및 수해우려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보강개소 우선순위를 정해 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차단 한다는 것.

한편 육안점검은 물론사람이 접근하기 힘든지역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시행하였다. 또한 낙석 방지시설 및 낙석감지센서 등 재해감시시스템의 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장은 점검에 함께한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봄철 해빙기 대비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인력점검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점검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곳까지 점검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개발공사, 관광운영사업장 일괄 매각으로 체질개선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해남땅끝호텔 476억원에 일괄 매각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전남지역의 열악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운영하던 관광운영사업장(한옥호텔 오동재, 한옥호텔 영산재, 해남땅끝호텔)을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소재 법인 재림이앤시에 476억 원에 일괄 매각하였다고 밝혔다.

공사가 운영한 관광사업장은 영암국제자

동차경주대회(한옥호텔 영산재), 여수세계박람회(한옥호텔 오동재) 등 도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의 숙박시설 지원 및 낙후된 땅끝 관광지 활성화(해남땅끝호텔)를 위해 건립되었으며,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숙박시설로서 우리 지역 알리기에 역할을 다해왔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본연의 개발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며, 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장은 민간전문 기업의 노하우와 추가 투자를 통해 향후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 광주시장, 대선 투표 독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둔 7일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임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선 투표 참여 대신 민호소문”을 통해 “정치의 본질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천사정치는 아합과 반칙으로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옳고 그름을 심판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했고,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했다”며 “대한민국과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3월9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국 최고 투표율로 민주화 성지임을 다시 한 번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관리 미흡과 혼선을 언급한 뒤 “선관위는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3월9일 선거일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공직자들에게도 “확진자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한편 일반 유권자들이



대선 투표 독려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코로나 감염위험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 투표소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 북구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내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체험이 가능한 ‘요술 숯가락 스마트 박물관’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 온·오프라인 체험 ‘스마트 박물관’ 개관

광주 북구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내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체험이 가능한 이색 박물관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요술 숯가락 스마트 박물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확보한 1억 원을 비롯해 총 2억 원이 사업에 투입됐다.

스마트박물관은 IoT(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전시물에 온라인 콘텐츠가 융합된 쌍방향 관람시스템이다.

방문객들은 박물관에 진열된 음식 모형 등 전시물 300여 점을 관람하고 RFID(무선주파수 식별)칩이 부착된 요술 숯가락을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에 인식시켜 나만의 남도 한정식 상차림을 만들 수 있다. 김재환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2 년 단 318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형호 (500306-1642112)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군왕로 17, 102동 4층 402호 (풍향동, 교대금호아울림)

위 망 이형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3월 8일

공 고 인 : 이경애, 이경영, 이미영, 이경국
주 소 : 광주 북구 각화대로 33, 12동 506호(각화동, 금호타운)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3월 4일
공 고 기 간 : 2022. 3. 8 ~ 2022. 5. 8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0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240,833원	125,531원	78,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2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인민중재원
Korea People's Tribunal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인 이해관계서 제정된 송고입니다.